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알리는 교회



기쁨과 정성으로 주일 점심을 준비해주시는 사모님 :)

파와 마늘, 청동 뱀, 그리고 새로운 출발

오종향 목사와 함께하는 영혼의 아틀리에

지난 두 달간 금요기도회와 이번 주 리딩지저스 묵상을 통해 우리는 민수기라는 은혜의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이번 주 단톡방에 올라온 조장님들의 나눔을 읽으며, 우리의 빈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를 보면 피라미드 건설 인부들의 특식이 양파와 마늘이었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는 파와 마늘이 없다"며 원망한 것은 이 고고학적 증거와 부합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파/양파로 모두 번역 가능합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여전히 노예 시절의 입맛과 시야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뼈아픈 이유는 저 역시 오늘 내게 없는 것들을 보며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게 주어진 은혜의 만나조차 "하찮은 음식"이라 원망했고, 비신자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늘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한 조장님의 고백이 곧 우리의 실상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메뚜기 시야에 갇히는 나 대신 예수님께서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매몰되어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뱀에 물린 자는 장대에 매달린 청동 뱀을 바라볼 때 살아났습니다. 청동뱀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습니다." 최고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경이로운 만나를 매일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안전, 음식, 깨끗한 물, 국가, 정부, 학교, 가정, 일터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고, 함께 예배할 교회와 귀한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앞둔 신명기의 산에 오릅니다. 우리의 소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 알리는 것."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덮으시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신명기라는 새로운 은혜의 여정을 기쁘게 출발합시다.

예배 순서

찬 송		다 같 이
성경봉독	신명기 34:1-12	안나현 학생
설 교	모세: 내려놓으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오종향 목사
찬 송		다 같 이
안 내		오종향 목사
축 도		오종향 목사
점 심		다 같 이

커뮤니티 소식 & 섬김

성경봉독	청소정리	교육부 양육
3/8 안나현	3/8 청소년부	유치부 11:00
3/15 이세린	3/15 김성배 조	초등부 10:00
3/22 이시원	3/22 우문주 조	청소년부 13:00
3/29 조하원	3/29 김재강 조	

교회 소식 및 안내는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유치부 주일예배

가장 멋진 의사, 예수님!

2층 교육부실
11:00-12:10

초등/청소년 양육반

예수마당 / 어성경 구약반

2층 교육부실
초등부: 10:00-10:40
청소년부: 13:00-14:00

금요기도회

(2주: 가족)
사랑이 흐르는 우리 집 식탁

3층 예배실
금요일 저녁
19:30-20:30

리딩지저스 가이드
(민수기 29장~신명기 9장)

오종향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생명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소망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 교육: 최은총 전도사, 교사: 유은희
- 조장: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현지, 손이숙, 우문주, 유은희, 이수민
- 행정: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혜영, 은원철 (섬김위)
- 찬양: 김성배 (팀장), 노영숙, 은원철, 이성은
- 재정: 김재강 (팀장), 은원철
- 봉사: 안내 (민경애, 박민수), 김밥 (박태원), 라면 (김재강), 커피 (강자은), 데코 (강자은, 우문주)
- 선교: 김남진/김성은 (영국 기도 선교), 임일혁/송경남 (캐나다 이주민 선교), 하**/강** (동남아 무슬림 선교)
- 구제: 유니시드(북한 이탈 학생 장학), 시선오브(자립준비청년 돌봄), 이천 성애원 보호종료아동(생계 지원), 소망을 찾는 이(노숙자, 쪽방촌)